

## 2022 젊은 건축가상 전시

- 김효영  
김효영 건축사사무소
- 박정환  
송상헌  
심플렉스 건축사사무소
- 김우상  
이대규  
카인드 건축사사무소

## 2022 Korean Young Architect Award Exhibition

- Kim Hyoyoung  
KHYarchitects
- Park Chungwhan  
Song Sanghun  
Simplex Architecture
- Kim Woosang  
Lee Daekyu  
KIND ARCHITECTURE

**2022 젊은건축가상 전시**  
**2022. 12. 22—30, 10:00—19:00**  
**(월요일 휴관)**  
**문화역서울284 RTO**

**2022 Young Architect Award Exhibition**  
**22—30 December 2022, 10:00—19:00**  
**(Closed on Mondays)**  
**Culture Station Seoul 284 RTO**

**전시 오프닝 및 도록 발간 기념회**  
**2022. 12. 22, 목요일, 17:00—19:00**  
**문화역서울284 RTO**

**Exhibition Opening Reception &**  
**Publication Ceremony**  
**Thursday, 22 December, 17:00—19:00**  
**Culture Station Seoul 284 RTO**

# KHY architects



김효영

김효영건축사사무소

단국대학교와 경기건축전문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여러 젊은 건축가의 아틀리에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다가 김효영 건축사사무소를 개소하였다. 건축이 만들어지는 상황에 감정이입하여 성격을 찾아내고 표현하며, 이를 통해 드러나는 질문으로 건축과 지금의 우리를 묶어내려는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영주시, 서울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공공건축가로 활동하였으며, 연세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로 출강중이다.

[khyarchitects.com](http://khyarchitects.com)

## 동해 폐쇄석장 리모델링 Stone-crushing Factory Remodeling, Donghae



무릎 3지구의 시멘트를 파내는 구덩이가 깊어지고 그곳에 물이 채워져 호수가 되는 모습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이곳의 시작과 끝을 함께했을 쇠석장 건물은 갑자기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 자부심과 쓸쓸함을 전해주었다. 새롭게 시작하여야 하는 순간에서 지나온 과거를 낱선 비판으로 질문하고 다른 측면으로는 강한 연민으로 위로하며 변화를 위한 결심과 기대를 표현하는 일이 마치 화가가 자화상을 그리는 일과 같이 생각되었다.

쇠석장은 석회석의 처리과정의 공간의 구성으로 드러나는데, 석회석을 부수기 위한 설비가 나열되는 수평의 외부공간과, 각 단계로 중력과 컨베이어벨트를 통해 이동하는 수직의 내부공간사이의 강한 대비가 외부의 형태를 특징지어 준다. 또한 과도하게 육중한 콘크리트 기둥과 벽, 가볍고 세장한 금속트러스의 지붕, 분쇄기를 받치고 있던 여섯 개의 콘크리트 기단, 꼭대기에서 굴뚝을 내밀고 있는 거대한 집진설비와 컨베이어벨트 등의 요소들이 산업시설의 낯선 분위기를 만들고 이전의 기억을 전달해주었다.

기능을 잃어버린 기존의 공간구조와 요소들은 원형대로 유지한 반면에 새로운 기능을 위한 공간들은 최대한 독립적으로 덧붙거나 끼워져 기존의

- 위치: 강원도 동해시 삼화동
-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공장, 근린생활시설
- 준공연도: 2021년
- 사진: 황효철

것과 구별하려 하였는데, 이는 이전의 정체성과 새로운 쓰임을 대비시켜 둘 모두를 훼손 없이 명료하게 하려는 이유이다. 새로운 기능을 위해 추가된 공간 중 엘리베이터와 계단실은 수직의 내부공간 후면에 연결되며 수직성을 강조하고, 2층의 전시실은 22개의 기둥에 둘러싸인 수평의 외부공간 안쪽으로 떠있듯 간신히 지지하여 길게 관통하며 형태적이고 구조적인 모험을 감행한다.

제일 높은 곳의 전망대는 기존의 박공형태의 모서리에 부정형의 평면으로 매달리듯 돌출되어 안쪽으로는 남겨진 집진설비를 바라보고 밖으로는 단지의 경관을 조망하는데, 외부의 모습에 있어 시설의 새로운 사용과 변화를 알리는 사인과도 같은 표현이다. 내부공간에 새롭게 계획된 직선과 원형의 철골계단은 비워진 공간을 굽이굽이 오르며 남겨진 요소들과의 대비를 통해 시간에 대한 감각을 예민하게 하고, 거칠게 깨어낸 콘크리트 벽과 매끈한 곡선 콘크리트 벽은 기존의 콘크리트 구조물과 함께 다양한 콘크리트의 질감을 보여주며 시멘트를 생산하던 공간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여줄 것이다.

## 문경 복터진집 Fortune-striking House, Mungyeong



‘복터진집’은 건축주가 오랫동안 운영한 복어 요릿집의 이름이다. 이 이름이 주는 동음이의어의 유쾌한 놀이가 시작부터 떠올랐던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흔히 보이는 상가주택 마을을 가로지르는 천변에 가로수로 심겨진 벚꽃이 만개할 모습과 삶의 터전이 되어 준 장소에 대한 건축주의 애정이 어떤 금기에서 벗어나 더 용감하게 즐거운 상상을 하도록 부추킨 것도 같다. 아래의 3개 층이 임대기능 탓에 무성적이어서 하는 사각형의 평면으로 계획되면서 떠올랐던 이미지들은 조금 더 자유롭고 고정적일 수 있는 4층의 단독주택에서 강조되었는데, 여러 형태의 검토 끝에 다섯 개의 원이 연속된 듯한 지붕의 모습으로 결정되었다. 길다란 직사각형의

- 위치: 경상북도 문경시 모전동
- 용도: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 준공연도: 2020년
- 사진: 진효숙

주택평면 위로 나열된 다섯 개의 반원은 각각 양 끝의 높고 등근 지붕과 두 개의 다락방과 엘리베이터 오버헤드의 기능을 하지만, 밖에서 보면 구름 같기도 하고 식빵이나 요리사 모자 같기도 하여 많은 것들을 연상하게 하는 즐거운 상상에 대한 상징이고, 긍정을 위한 건축의 선언과 같은 것이기도 하다. 무심한 듯한 사각형의 덩어리에 반복된 창 배열과 흰색 콘크리트 스테인은 지붕의 모양과의 대비를 더욱 강하게 해주고, 주택의 간판과도 같이 플랫한 입면과 반짝이는 백색타일, 티타늄 징크 지붕은 판타지와 같은 가상성을 더해 다시 상상을 부추긴다.

## 인제 스마트복합쉘터 리모델링 Smart Mixed-use Shelter Remodeling, Inje



건축의 어떤 상황은 땅이 가진 성격과 해야 하는 역할이 어긋난다. 44번 국도변 소양호에 면해있는 대지는 안내판에 적혀있던 수몰의 기억을 굳이 떠올리지 않더라도 잔잔한 호수가 이어지는 서정적이면서도 사색적인 경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주차장 뒤로 길게 늘어선 건물은 이러한 경관을 가리고서 맞지 않는 옷을 입은 듯 서 있었고, 더구나 지나가는 도로위의 시선을 사로잡아 지역 활성화를 도모해야한다는 기대가 무척 버겁게 느껴졌다. 결국 이 어색함과 부담이 다른 성격과 역할을 서로 나누어 독립시켰다. 소양호를 가로막고 있던 기존건물은 판매장의 기능을 덜어내고 헛벽과 지붕날개, 여러 재료로 치장한 거추장스러운 옷을 벗어버리며 콘크리트 구조물만 남아 온전하게 보는 장소가 되었다. 마치 수몰의 유적처럼 드러난 콘크리트 구조물은 기능 없음으로 소양호의 경관을 극적으로 투영하며, 군데군데 놓인 돌덩이는 빈 공간의 사색적인 성격을 더해주는데, 가장 높은 곳에 위태롭게 얹혀진 돌은 황동욱 건축가가 진행해

- 위치: 강원도 인제군 남면 남전리
- 용도: 문화 근린생활시설, 쉼쉘터
- 준공연도: 2022년
- 사진: 진효숙

온 설치작업인 Stone Log Series의 하나로 완성되었다. 없어진 판매장의 공간은 기존건물 앞에 마주하여 독립적으로 새로운 건물이 되었고, 역할이 분리된 만큼 그 성격과 표현도 대비를 이룬다. 기존건물의 콘크리트 구조가 무겁고 정적인 성격인데 반해 새 건물은 철골구조의 가벼움으로 역동적인 조형을 한껏 과시하는데, 마치 천이 바람에 날리는 듯한 지붕의 모습은 특히 도로쪽으로 큰 물결모양의 곡선을 드러내며 시선을 사로잡아 새로운 역할의 기대에 응답하려 한다. 지붕의 안쪽을 받치고 있는 기둥들은 서로 다른 형태로 떠있는 지붕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외부공간의 가구와 조명, 조각의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다른 성격의 두 건물이 엇갈리며 마주보고 있는 배치는 외부공간의 경험과 감정을 다양하게 하여, 건물 사이의 긴 안마당을 따라 소양호를 향한 시선의 차이를 만든다. 결국 이 분리는 섞이기 어려운 것을 나누어 스스로의 모습과 역할을 찾음으로써 다시 화해하기 위한 것이다.

## Architect's Note

## I 건축의 용기

## 건축이라는 사물과의 관계

건축은 사물이다. 우리는 사물을 짓는 행위를 통해 환경과 또는 타인과 관계한다. 관계는 상호적이어서 사물이 서로의 관계를 드러낼 때 그것으로 다시 우리를 의미 짓는다. 때문에 우리가 사물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용하는 일방적인 관계로 여길 때, 사물과의 짓기의 선순환은 깨져버리고 만다. 건축이라는 사물이 비바람을 막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의 사회에서 건축의 자리를 찾기는 어렵다. 건축이 부동산이라는 이름의 부의 축적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 된지 오래지만, 사력을 다해 완성도를 갖춘 공간마저 다시 자본의 욕망을 부추기는 도구로 소비되어버리는 상황에서 나약한 건축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부정의 부정은 긍정

이러한 현실에 대한 부정을 통해 관계의 회복을 도모하기엔 건축이 만들어지는 상황은 항상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현실에 대한 체념이 관계를 포기하게 하거나 아무것도 짓지 못한다면, 부정의 태도로 이루어지 못한 스스로를 다시 부정하여 긍정의 태도로 되돌려야 한다. 이 긍정의 태도는 체념이 거부했던 현실에 발을 딛고서 건축이 만들어지는 상황을 끌어안는다. 부정의 부정을 통한 긍정이 최초의 긍정과 다른 것은 비판의 시선과 함께 긍정의 태도를 의지적으로 유지하려 하는 것이고, 때문에 상반될 것만 같은 긍정과 비판이 함께하여 미지근하지 않고 뜨거운 동시에 차가운 온도를 갖는다.

## 감정이입과 성격

긍정의 태도는 상대방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다. 건축이라는 사물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이해해야 할 대상은 이유와 목적, 취향과 자본, 시대와 환경 등의 조건들 사이에서 생겨나고 살아가야 할 존재로서의 건축이다. 여기에는 감정이입이 필요하다. 감정이입은 물러섬이 아닌 다가감이고, 왜 그래야만 하는가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공감이다. 이러한 감정이입의 과정을 통해 어떤 성격이 드러나는데, 마치 사람의 인격과도 같이 내재적인 것과 환경적인 것이 포함되어 우리와 관계하는 성격이 된다. 성격은 주체적인 존재의 특성이며 다름을 바탕으로 관계를 목적한다.

## 지나침의 정도

관계의 바탕은 서로의 주체성이지만 건축이 태어나는 과정은 항상 자유롭지 못하여 조건에 반하는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기 어렵다. 이 상황과 요구에 벗어나지 않으면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지나치게 호응하는 것이다. 지나친 호응은 주어진 상황에 대한 강한 긍정이면서도, 그 지나친 정도만큼 도구적으로 종속되지 않는 자율적 의지가 되고 주체성이 된다. 지나침은 성격을 드러내기 위해 강조되고 대비되며 과장되는데, 이것은 관계하려는 적극적인 의지이고 돌아선 이들을 부르는 것이다.

## 바라보기

부르고 말을 거는 것은 바라봐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며, 지나침의 수사를 동원하는 이유는 그만큼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바라보기는 관계의 시작이다. 간절히 원하는 목소리는 때론 낯설고 불편하거나, 혹은 좀 못생겨 보이더라도 이를 무릅쓰고 용기를 낸다. 굳이 용기를 내는 까닭은 그 낯선 지점에서 서로를 주목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며 불편할 수도 있는 그곳이 새로운 관계를 위해 다시 바라보아야 할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럼으로 이 지나침이 낯설음을, 낯설음이 바라봄을 이끌어주기를 기대한다.

## 다시, 관계

결국 건축이라는 사물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이고 또한 그 관계조차 우리를 위한 것이며, 건축이 만들어지는데 관여하는 사람으로서의 의미 찾기이다. 그러나 건축과의 관계맺음을 통해 우리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공감대가 건축을 매개로 개인을 넘어 같은 시간과 공간을 살아가는 존재 사이의 유대를 넓혀가는 바탕이 될 것이라 믿는다. 이종건의 “영혼의 말”의 문장에 따르면 나는 두 개의 길 중 후자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다.

“우리가 피차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것은, 우리 모두 어리석기 때문이다. 어리석으면서도 나는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고, 너는 나에게 건너오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와 나를 가르는 간극을 상처 없이 건너는 방도는 없다. 너와 나는 얼마일지 모를 상처를 내고서야 비로소, ‘조금이나마 그리고 잠시나마’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중략) 그리하여 우리 앞에는 두 개의 극단의 길이 있다. 하나는 최소로 존재함으로써 상처를 피하는 길이며, 다른 하나는 기꺼이 상처를 껴안은 채 최대로 존재하는 길이다. 우리는 대부분 그 사이에서 머뭇거린다.”

# Simplex Architecture



박정환, 송상현

심플렉스 건축사사무소

심플렉스 건축사사무소 (Simplex Architecture) 는 2014년에 뉴욕에서 설립되었으며, 2017년 서울로 사무실을 이전하여 건축, 도시, 인테리어, 제품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건축과 디자인의 복잡한 (complex) 문제들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단순한 (simple) 해결책을 도출해 내며, 높은 퀄리티의 디자인을 이루기 위해 이를 면밀히 탐구한다. 디자인의 기본 요소인 조화, 비율 등과 함께 건축의 근간을 이루는 구조 시스템과 디테일에 대해 연구하며, 내부 공간의 구성, 계획, 동선 등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그 경제 논리를 함께 탐구한다. 주요작품으로는 이사부독도 기념관, 리버티 라운지, 중앙 스퀘어 등이 있다.

박정환은 심플렉스 건축사사무소의 대표이자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 교수로서 건축, 도시, 인테리어 등 폭넓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대학교와 하버드 건축대학원에서 건축을 공부했으며, 서울의 매스터디스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뉴욕의 Richard Meier & Partners Architects와 Asymptote Architecture 에서 Seamarq Hotel, Vitrum, ZIL Tower 등의 Project Architect로서 활동하였다. 그는 미국 건축사이며 LEED AP이고, 서울시 공공건축가이다.

송상현은 심플렉스 건축사사무소의 대표로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건축을 공부했으며, 서울소재의 여러 건축사사무소를 거치며 공공 시설물에서부터 공동주택 프로젝트에 이르기 까지 크고 작은 규모, 다양한 용도의 건축 프로젝트의 경험을 쌓았다. 이를 토대로 도시, 건축, 조경 등 폭넓은 분야에 관심을 갖고 활동 중이다. 그는 대한민국 건축사이다.

[simplexarchitecture.com](http://simplexarchitecture.com)

## 이사부독도 기념관 Isabu Dokdo Museum



대상지는 강원도 삼척시 정라동 일대로서 과거 신라 장군 이사부가 현재 울릉도, 독도가 된 우산국으로 출정했던 지역이다. 대지의 중심에 있는 육향산은 이사부 장군 출정 당시에는 바다위의 섬이었으나, 현재는 매립이 되어 산이 된 곳이다. 우리는 이곳의 과거의 땅을 드러내고 물을 다시 도입함으로써, 과거의 역사성을 드러냄과 동시에 독도의 이미지를 상기시키게 하고자 하였다. 이사부독도 기념관은 지형적, 수리적, 지역적 자연을 동시에 드러냄으로써, 사람들이 건축과 조경의 조화를 통해 이사부와 독도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가 된다.

이 프로젝트는 한때 바다 위의 섬이었고 현재는 매립지인 대지의 지형적 특성을 드러낸다. 현존하는 땅을 발굴함으로써 지형이 지니고 있는 역사성을 드러내며, 이 기념비적인 장소의 주요 요소가 될 것이다. 더불어, 회복된 지형에 물을 재도입하고, 이러한 물을 전시, 교육, 체험, 휴식 등의 건축 프로그램과 연계시킴으로써, 한때 우산국으로의 출정을 위한 출항지였던 대지의 수리적 자연을 그 당시의 레벨로 회복시키고 드러낼 것이다. 더 나아가, 이 프로젝트는 주변 지역의 소중한 자연적/문화적/역사적 자원과 대지를 연계시킬 수 있는 토착적 경관과 지역적 가능성을 동시에 드러내며, 삼척시가 더 매력적인 도시로 거듭날 수 있게 할 것이다.

건물은 관광안내센터, 영토수호기념관, 독도체험공간, 복합휴게공간 총 4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람들은 하나의 통합된 공간에서 전시를 관람하는 것이 아닌, 분절된 4개의 동을 이동하며 전시를 관람하게 된다. 각 건물들 사이에는 대상지 본연의 자연경관을 드러내는 외부 공간들이 채워지고 연결되며 건축과 조경이 조화를 이루게 된다. 관광안내센터에서 시작되어 영토수호기념관, 독도체험공간, 복합휴게공간에 이르기까지,

- 위치: 강원도 삼척시 정하동
-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 준공연도: 2022년(예정)

이사부독도 기념관 방문객들의 순차적인 경험은 건축 레벨의 연속적인 변화와 실내외 공간의 교차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러한 건축적 산책은 풍부한 경험을 제공한다.

이사부독도 기념관의 방문객들은 관광안내센터를 시작으로 전시를 경험하게 된다. 건물의 상층부는 도로레벨로부터 진입이 가능하며, 저층부로 내려가면 삼척시와 이사부독도 기념관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진입로비와 안내센터가 위치해 있다. 관광안내센터를 나와 영토수호기념관으로 향하는 길목에는, 막돌쌓기의 방식으로 구성된 벽이 전면에 나타난다. 이는 과거 신라시대 수군의 기지였던 삼척 포진성이 위치했던 자리를 보존하여 그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자 함이다. 이곳을 지나 영토수호기념관에 진입하면, 높은 층고의 로비공간이 사람들을 맞이하며, 천창을 통해 떨어지는 빛은 벽을 타고 흘러들어온다. 이곳은 전시관람을 위한 대기공간인 동시에,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고 경치를 즐길 수 있는 라운지로서의 역할도 겸하게 된다. 전시관 내부로 들어서면 삼척을 중심으로 활동한 이사부 장군의 일대기와 역사적 의미가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하여 상영된다. 영토수호기념관과 독도체험공간 사이에 위치한 바위마당은 육향지와 육향산을 함께 바라보며 독도의 이미지를 느끼는 공간으로서, 사람들은 이곳에 앉아 조용히 명상을 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 다양한 이벤트를 경험하기도 한다. 바위마당을 지나 진입하게 되는 독도체험공간 역시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한 전시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마치 독도에 직접 온듯한 실감 독도체험을 통해 독도의 문화적 향유를 가능케 한다. 독도체험공간 주변을 따라 연결된 경사로는 상부층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며, 브릿지를 통해 복합휴게공간으로 연결된다. 복합휴게공간은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서, 북카페, 강연, 이벤트 개최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

## 리버티 라운지 Liberty Lounge



리버티 라운지는 서울 강남 도산대로의 한 커 뒤 골목길에 위치하고 있다. 과거에는 주거지역이었으나, 최근에는 상점들과 레스토랑이 들어서면서 상업지역으로 변모하고 있다. 기존의 건물은 중정이 있는 심플한 형태에, 마감재와 구조재가 노출된, 블럭벽과 검은 스틸의 모던함이 돋보이는 건물이었다. 기존의 물성을 유지하면서도 라운지바라는 프로그램을 수용하기에 적당한 변화를 꾀하는 것이 디자인의 주 관심사였다. 기존의 물성을 유지하기 위해 북측(측면)의 블럭벽은 존치하되, 그 외 증축하는 부분들은 기존의 프레임 및 기둥에 있던 재료의 느낌을 살려 검은 스틸을 주 재료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는 공사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이고자 한 건축주의 요구로 인해 건식공법만을 이용하고자 한 배경도 있었다.

기존의 건물은 건폐율 52.76% (법정 60%), 용적율 76.98% (법정 200%) 의 2층 규모의 건물이었다. 건축주는 이를 증·개축하여 건폐율을 최대로 올리고 3층규모의 건물로 바꾸고자 하였다. 연면적 401.16 m<sup>2</sup>를 늘려 건폐율 59.74%, 용적율 118.97%의 건물이 되게 하였다. 디자인의 초기 단계에서는 3층의 증축되는 매스를 2층에서 그대로 올려 기존의 심플한 심플한 형태를 유지하고 하였으나, 건물 북측의 높이제한으로 인하여 건물의 북측 상부가 잘려나가는 형태가 되어야 했다. 이를

- 위치: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 용도: 라운지 바
- 준공연도: 2016년
- 사진: 신경섭

건물자체의 형태로 치환하고자 3층의 매스를 틀어서 놓음으로서 남측의 접점에서부터 사선으로 비틀려진 형태를 취하게 하였다.

동측(전면) 입면은 커튼매쉬를 외장재로 이용하여 스틸의 강한 물성과 곡선의 부드러움을 동시에 표현하고자 했다. 반원들의 엇갈린 조합으로 이루어진 곡선의 형태는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서로 엇갈려 배치되어 있으며 그로 인해 중간부분에는 자연스러운 형태의 전이(transition)가 일어나게 된다. 이 스킨은 프로그램의 특성상 내부와 외부를 단절시키는 벽 앞에 위치하여 흐릿한 레이어를 형성하며, 이는 외피의 모호한 특성을 나타낸다. 이 스킨의 전면에는 LED 라인을 설치하여 커튼매쉬의 곡선 형태를 강조함과 동시에 필요에 따라 조명의 색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의도하였다.

건물의 주 출입구는 북측으로 변경되었으며, 기존의 동측 입구는 커튼매쉬로 가려졌다. 그러나 커튼매쉬 뒤로 희미하게 기존의 입구와 계단을 볼 수 있다. 건물의 북측에는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콘크리트 계단이 있었는데 증축을 하면서 이를 3층까지 연장하게 되었다. 이 계단은 검은 스틸로 형태를 이루고, 기존 콘크리트 계단의 물성을 살리기 위해 그 윗부분을 몰탈로 채워 마감하였다.

## 종암 스퀘어 Jongam Square



높이 10미터의 고가도로 하부에 위치한 종암사거리의 유희공간은 15-20미터 도로에 둘러싸여 있고, 북부간선도로와 내부순환로의 교차지점이라서 상습적으로 차량이 정체되는 구간이다. 그 종암사거리를 지리적 경계선으로 삼고 있는 돈암1동, 월곡1동, 종암동은 대규모 주거단지와 여러 교육시설이 들어선 곳이지만 공원, 녹지 등의 공공공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동네다. 대지 동쪽으로 산책로를 갖춘 정릉천이 있지만,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 악취가 심하고 미관이 좋지 않다. 서측 블록의 상업지역과 왕래하는 보행 흐름이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곳에 머무르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 새로 조성되는 시설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커뮤니티 공간 겸 쉼터의 역할이 요구됐다.

어긋난 모양의 두 횡단보도를 연결하는 대상지는 정릉천으로 진입하는 보행 경사도와 이어져 있다. 만약 이 공간이 정비된다면 사람들의 보행 흐름을 잘 이어줄 것 같았다. 그래서 세 방향의 접근동선을 방해하던 기존 데크와 중앙 분수대는 철거했고, 그곳에 분절된 듯한 형상의 건물을 놓았다. 매스 사이의 공간들이 공공보행로로서 작동하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건물 안으로 들어와 이웃들과 함께 활동할 것이라 기대했다. 실내에 위치한 창작마당과 쉼터 역시 공공보행로의 일부로 계획했는데,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 문을 개방해서 반 외부공간으로 사용하거나 확장된 내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분절된 매스들은 도로 사이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각각의 고정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에 맞게 유동적으로

- 위치: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
- 용도: 운동시설
- 준공연도: 2020년
- 사진: 신경섭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그중 다목적 문화공간은 운동, 공연, 강연 등 활동적인 행위가 이뤄지는 영역으로, 커뮤니티 공간은 필라테스, 전시, 소규모 모임 등 비교적 정적인 행위를 담는 영역으로 계획했다. 창작마당과 다목적 문화공간, 커뮤니티 공간 사이에는 자유로운 공간 확장과 분리가 가능하도록 폴딩도어를 설치했다. 그리고 그 옆에 위치한 공공보행로에는 건물을 오고 가는 사람들이 머무를 수 있도록 목재 선반, 벤치 등의 설치물을 두었다.

초기 계획안은 건물 전체를 목구조로 구성하여 구조와 마감 모두 목재를 활용하는 모습이였다. 그러나 목재만으로 하중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구조적, 비용적인 한계가 있어, 철골로 전체 구조를 형성하고 거기에 목재를 덧대는 현실적인 방식을 선택했다. 건물의 구조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철골구조와 목구조는 건물의 측면과 상부를 둘러싸며 안정감 있는 형태를 만들어낸다. 거기에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목재 루버의 흐름이 더해져 실내에서 보이는 외부의 시각 환경을 차단하고 있다. 남북방향으로 형성된 구조체는 철골구조 양쪽에 적삼목을 덧붙인 형태를 취하고 있어, 구조미를 드러내면서도 목재 특유의 따뜻한 분위기를 강조한다. 그리고 건물 바깥에 마감된 적삼목 패널을 실내로도 들여와 주요 구조부를 감싸면서 내부 벽체에 시공된 자작나무 합판과 함께 따스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렇게 우리는 반복되는 널 틈 사이로 언뜻언뜻 보이는 철골과 목재의 조화를 통해 고가 하부의 어둡고도 삭막한 분위기를 활기차게 바꿔보고자 했다.

## Architect's Note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일은 언제나 흥미로운 일이다. 그것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재미있는 일이지만, 그것이 실체화 될 수 있을 때에는 가슴벅찬 희열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건축가들은 머릿속으로 그리는 공간을 구체화하고 이를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그 공간을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고 즐기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건축가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아닌가 한다.

건물을 설계하다보면 때로는 마치 수학문제를 푸는 것처럼, 이런 저런 까다로운 조건들과 문제들을 해결하면서도 디자인을 충족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맞닥뜨리면, 골머리를 싸매고 끙끙대게 되지만, 어느 순간 좋은 해결책이 떠올랐을 때에는 마치 어려운 수학문제를 푼 것처럼 희열감이 느껴지기도 한다. 건축에서 단순히 보이는 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복잡한(복합적인) 고민들을 바탕으로 치열하게 연구해야 한다. 이는 지금까지 대다수가 하던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을 고안해내야 하는 일인 경우가 많다. 조각품과 같은 미술작품에서는 남들이 생각해내지 못한 개념이나 표현방식을 구현해 낸 것 자체만으로도 좋은 작품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사람들이 점유하고 사용해야 하는 건축에서는 구조, 방수, 단열과 같은 건축의 필수적인 기능이 손상되어서는 안되며,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방식의 디테일을 적용한다는 것은 때로는 기능상의 불확실성을 수반하게 된다. 이 때문에 개념적으로 해결된 것처럼 보이는 디테일들이 정말 문제가 없는 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때로는 현장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설계가 끝나고 공사가 진행되어 공사현장을 나가보면, 여러 상황들을 마주하게 된다. 이는 단순히 도면과 다르게 잘못 시공된 경우에서부터, 도면상의 디테일이 아닌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시공한 경우, 디자인은 해치지만 더 쉬운 시공방식을 제안하는 경우까지 다양하다. 건축가의 주된 역할은 상상했던 디자인을 공사 가능한 설계도면으로 구현하는 것이지만, 이것을 실제 건물과 공간으로 실체화하기 위해서는 공사단계에서도 여러가지 방법으로 개입하게 된다. 우리는 때로는 엄격하게, 때로는 유연하게 현장과 타협하며 이상과 실제 사이의 간극을 메우곤 한다. 건물이 잘 완공되기까지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는 마치 오케스트라가 아름다운 선율을 완성하듯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나아가야 하는 것이며, 건축주와 공사를 진행하는 시공사도 같은 의지를 가져야 한다.

사무실을 이제 막 오픈한 젊은건축가가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수주하기란 쉬운 일은 아니다.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는 건축가의 그간의 실적을 토대로 그 실력을 가능할 수 밖에 없으며, 아직 많은 준공작을 보유하지 않은 젊은 건축가들에게 민간 클라이언트가 프로젝트를 의뢰하게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와 같은 젊은건축가들은 설계공모에 참여하여 본인의 건축에 대한 생각들을 표현하게 되고, 공모당선을 통해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특히 최근들어 심사과정의 공개, 심사평 공개등 여러 방식으로 설계공모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시도들이 이어지면서 건축가들의 참여도가 더 높아졌으며, 그에 따라 더 좋은 작품들이 공공프로젝트로 완성되고 있다. 높은 퀄리티의 공공프로젝트가 우리 도시, 우리 사회에 주는 의미는 매우 크다. 공공 프로젝트는 불특정 다수에 의해 경험되고 이용될 수 있는 까닭에, 공공 프로젝트의 퀄리티가 높아질수록 그 도시의 퀄리티가, 더 나아가 사람들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우리의 건축은 공공성과 그 안의 사람을 초점으로 하고 있다. 건축과 도시가 지니고 있는 문제들은 사람의 삶과 행위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에 컨텍스트와 장소가 가진 성격에 따라 건축은 장소를 위한 배경 혹은 풍경이 되기도 하며 때로는 스스로를 드러내며 도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렇듯 다양한 해결 방안의 중심에는 항상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건축적 의도가 관통한다.

건축가로서 가장 큰 보람은 우리가 설계한 프로젝트가 여러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잘 이용되는 것이다.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만드는 이 공간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즐기고 좋아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기를 기대한다.

# KIND ARCHITECTURE



이대규, 김우상  
카인드건축사사무소

카인드건축사사무소는 건축을 구성하는 다양한 유형(형태, 스케일, 재료 등)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2017년부터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대표작으로 7377house, 서로재, bended house, 몽재 등이 있다.

건축가 이대규(좌), 김우상(우)은 2009년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을 함께 졸업하고, 뉴욕 소재의 MESH ARCHITECTURES에서 실무경험을 시작으로 함께 건축적 고민을 공유하였고, 이후 각각 (주)현대종합설계건축사사무소(이대규)와 건축사사무소 hANd(김우상)에서 다양한 스케일의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현재 카인드건축사사무소의 공동대표로 설계 작업을 진행 중이며, 2022 젊은건축가상을 수상하였다.

[kindarchitecture.com](http://kindarchitecture.com)

## 서로재(曙露齋) Seorojae



강원도 고성의 작은 마을에 위치한 대지는 녹음이 짙고 새소리와 바람 소리가 마주치는 장소였다. ‘쉼’을 주요한 모티브로 생각하는 이 장소의 건축은 대지가 가진 가능성이자 ‘자연의 풍경’을 조율하는 방법론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의도적으로 연속성을 가진 시각적 시퀀스를 만들어 건축은 풍경을 위한 장치로서 작동하게 하였다. 서로재가 ‘풍경의 조율’이라는 개념을 통해, 건축이 자연의 배경이 되는 것을 감각하기를 바란다.

### 조형의 시작점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충분한 주차 대수를 확보하기 위해 주차를 도로에 면해 배치하는 것이 건축 조형의 출발점이 되었다. 즉, 2.5m 폭의 주차 공간을 도로면에 나열하면서 만든 반복적 형태의 벽면이 조형적 요소로 부각되었다. 이를 통해 도로에서 내부의 모습을 볼 수 없도록 ‘도로-담장(공용 공간의 외벽)-객실’을 선형으로 배치했다. 여기서 다시 작은 골목(복도)들을 지나 각 객실의 내부 공간으로 연결되는 시각적 연속성을 고려했다.

### 시퀀스와 스케일의 전환

서로재의 여정은 거친 콘크리트 구조체 사이에 있는 좁고 어두운 진입로에서 시작된다. 폭 1.5m의 진입로로 들어서면 천장 주변에서

- 위치: 강원도 고성군 삼포리
- 용도: 숙박시설
- 준공연도: 2021년
- 사진: 김동규

흘러내리는 빛과 발 아래서 사각거리는 쇠석 소리에만 집중하게 된다. 그 끝으로 대지 안에 군집된 소나무들과 그 아래 자연을 비추는 작은 수공간이 나타난다. 소나무 숲을 중심으로 객실을 ㄱ자로 배치하면서 생겨난 두 개의 막다른 골목(복도) 끝에는 라일락과 느릅나무가 또 다른 시퀀스를 장식한다. 입구에서 보이는 탐을 제외한 서로재의 전체 높이는 3.6m이다. 경사진 도로면에서 보이는 장식적 외벽으로 인해 더 거대해 보이기도 하지만, 입구를 지나면 커다란 처마를 받치고 있는 나무 기둥이 등장하고, 2.4m 높이의 낮은 처마와 외부 골목길(복도) 등이 차례로 이어지는데 이들을 통해 폭과 깊이를 조율했다. 이러한 스케일의 전환은 낯설고 차가운 콘크리트 건물 사이사이에서 안정감을 전한다.

### 풍경의 위계

대지는 주변 부지보다 높은 곳에 자리하지만 풍경은 건축물에 의해 가려진다.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에 배치한 작은 외부 공간에는 기존에 자리한 나무들이 한편의 근경을 만들고 빛과 그림자가 계절과 시간을 풍성하게 그려낸다. 쉼을 위해 방문한 사용자들은 각 객실에 들어서서 순간 비로소 창을 통해 아름다운 산세가 중첩된 또 한 편의 원경을 마주하게 된다.

## 휘어진 집 Bended House



김포 자연녹지지역을 부분적으로 개발한 주택단지의 모퉁이 부지이다. 주택개발단지는 제한된 요소들이 없는 경우, 다양각색의 주택 형태와 재료로 채워져 있어 더 이상 프로젝트의 주요한 context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느낀다.

context가 없는 것이 context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로 우리는 대지의 형태, 조형적 요소, 대지 경계에 위치한 작은 나무숲을 고려한 건축적 배치, 내부 지향적인 공간구성 등을 통해 새로운 context를 구성하였다.

### 적절한 배치와 처마달린 담장

대지의 면적은 약300m<sup>2</sup>이지만, 지역 지구의 특성상 건축면적은 60m<sup>2</sup>로 작은 규모였다. 이 작은 건축은 주변 나무숲의 풍경과 이미 지어진 인접 대지 건축물의 경계를 활용하는 적절한 배치가 필요했다.

도로에서 이어지는 외부 계단을 올라야야 대지 전체를 바라볼 수 있었고, 이곳에 처마 달린 담장을 계획하여 대지를 둘러 현관까지 가는 긴 동선을 통해 대지의 경계와 건축물 사이의 공간감을 가늠하도록 하였다. 담장 끝에 자리한 나무숲을 시각적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이는 기존 담장의 역할과 달리 시각적 분절이나 차폐가 아닌 영역의 확장이 가능하다.

- 위치: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
- 용도: 단독주택
- 준공연도: 2021년
- 사진: 김동규

### 휘어진 조형의 안과 밖

ㄱ자 배치에서 진화한 휘어진 조형은 건축의 형태적 요소를 강조함과 동시에 주변에서 얻을 수 없는 빛의 배경이 되기도 한다. 집에서 일과 생활을 모두 영위하는 건축주의 직업 특성상 주거와 업무공간의 구분이 필요했고, 물리적으로 열린 내·외부 공간을 제안하였다. 1층에 배치한 공용공간(거실+주방)은 마당과의 관계를 위해 다양한 각도로 창과 문이 열려 있다.

2층은 작업실과 주거공간으로 구성되며, 이 두 공간의 경계가 되어주는 외부 테라스를 통해 공간감에 변화를 준다. 그리고 빛을 담을 수 있는 삼각형의 매달린 외부 중정은 창이 많지 않은 2층의 채광을 돕는 제안이면서 건축물을 단 순화 시키는 조형적 요소가 되기도 한다.

7377 주택  
7377 House

## 기존요소의 재현

강북구 우이동의 골목길 안쪽에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는 낡은 주택을 리모델링(+증축)한 프로젝트이다.

새롭지만 낯설지 않은 집을 짓겠다는 바람은 기존의 '붉은 벽돌 집'에서 새로운 '붉은 벽돌집'으로 주 재료를 정하면서 구체화 되었다. 기존 건물과 같은 재료를 쓴다는 정서적 출발선에서 모든 치장을 하나의 재료로 만들어내는 구축의 실행으로 증정은 한 재료의 단단함과 빛과 하늘의 부드러운 움직임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건축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공간 구성은 38평의 작은 대지 안을 차지하고 있던 기존 건물의 유형적 경험이 바탕이 되었다. 기존건물을 처음 마주하던 기억은 대문 안의 땅 안에 한 그루 나무가 있는 작은 마당, 바닥의 높이가 제 각각인 반지하 공간들과 그 위를 점유하는 1층으로 연결된

- 위치: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 용도: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 준공연도: 2018년
- 사진: fotografia y-Ta

커다란 돌계단으로 채워져 있었다. 낡고 오래된 재료들의 분위기만큼 기존건물을 구성하던 요소들(다양한 레벨, 구조와 형식 다른 계단, 공간의 위계등)을 토대로 과거와 형상은 다르지만 7개의 단위공간, 7개의 레벨, 7개의 계단박스가 나열된 3개의 프로그램(주거2+상업1)이 채워진 공간을 제안하였다.

북한산 자락 아래 1975년에 지어진 집은 45년이 지나 예전 흔적을 담은 다른 모습이 되었지만, 외부와 바람이 통하고 내부에서는 시선이 통하는 집이 되어 온화한 동네에 차분한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다.

## Architect's Note

## 자연스러운 건축

건축 어디서 영감을 받느냐는 난처한(?) 질문을 받는다. 건축은 소위 말하는 '영감'을 받아 기발한 무언가로 시작되거나 완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건축은 언제나 이미 거기에 있는 것에 의존한다"는 사이먼 언윈(Simon Unwin)의 말은 우리가 건축 작업을 대하는 태도이기도 하다. 물론 장소가 가지는 가능성은 시간과 함께 변모하기도 하며, 장소의 맥락과는 별개로 사용자의 요구 조건들은 그들 삶의 오래된 습관부터 지금의 관심까지 곁들여져 다양한 형식으로 동시에 나열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그 수많은 조건들이 대기 위에서 자연스럽게 관계 맺는 과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건축가의 역할이라는 생각은 확고하다.

## 물리적 유형

사무소 이름인 'KIND ARCHITECTURE'에서의 'KIND'는 '친절한'의 의미가 아닌 'one of kind', 즉 '유형, 종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는 추상적 개념이 실체화(구상화)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건축을 여러 가지 관점으로 인식할 수 있는 물리적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건축을 구성하는 물리적 유형은 형태와 기능의 관계, 공간의 스케일과 비례가 만드는 균형, 사과의 확장을 이끄는 배경, 분위기를 형성하는 재료의 물성 등으로 표현될 수 있다. 우리의 관심은 그것에 더해 내부와 외부의 관계(접점)에 대한 고민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외형적 형식과 내부에서 이뤄지는 경험이 분리되지 않게 하려는 목적이기도 하지만, 건축물이 조형성을 드러내는 시각적인 대상으로만 소비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기도 하다. 조금 더 부연하자면 그것을 통해 풍부한 경험적 삶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 정서적 공간

클래식 협주곡에는 '카덴차(cadenza)'라는 구간이 있다. 작곡자가 곡의 일부 구간을 비워 놓아 개별 연주자가 자유롭게 즉흥 연주가 가능한 부분인데, 이때 관객은 진행되던 곡의 흐름과 다른 형식의 연주를 감상할 수 있다.

우리는 카덴차와 같은 공간, 즉 예상하지 못한 경험이나 설명할 수 없는 분위기를 건축의 일부에 만들고자 한다. 그것은 이미 알고 있던 평온함일 수 있고, 익숙하지 않은 어색함이기도 할 것이다. 이처럼 '생경한 자유로움'이 사람의 감각과 감정을 움직여 그 장소와 시간의 변화를 섬세하게 느끼도록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우리가 바라보는, 건축에서의 '정서적 공간'이라는 것은 미학적 완성도와 기능적으로 온전한 건축이 바탕이 되어 눈에 보이지 않는 감각의 환기를 경험하는 공간이다.



젊은건축가상은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정한 수상 제도로 한국의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젊은 건축가 발굴을 목적으로 한다. 수상을 통해 그들의 건축적 세계를 피력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젊은건축가상은 더 나아가 한국건축이 문화적 저변을 확대하고, 세계와 교류하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새건축사협의회 한국건축가협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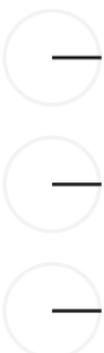
본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후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후원: 기원산업(주), 공정건설(주), (주)도담종합건설, 리우종합건설(주),

(주)마루종합건설, 씨엔오건설(주), 엠오에이종합건설(주),

우리마을A&C(주), 이드하임(주), (주)이안알앤씨

# KORFEST THE BEST YOUNG ARCHITECT AWARD 2022



## 2022 젊은 건축가상 전시

■ 김효영  
김효영 건축사사무소

■ 박정환  
송상헌  
심플렉스 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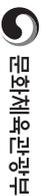
■ 김우상  
이대규  
카인드 건축사사무소

## 2022 Korean Young Architect Award Exhibition

■ Kim Hyoyoung  
KHYarchitects

■ Park Chungwhan  
Song Sanghun  
Simplex Architecture

■ Kim Woosang  
Lee Daekyu  
KIND ARCHITECTURE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새건축사협의회 한국건축가협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

본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후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후원: 기원산업(주), 공영건설(주), (주)도담종합건설, 리우종합건설(주),

(주)미래종합건설, 세연오건설(주), 엘오에이종합건설(주),

우리마을A&C(주), 이드하임(주), (주)이안빌앤씨

KOREAN YOUNG ARCHITECT AWARD 2022

